

##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

< 시편 119:51-56 >

1.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? (51절)
2. 왜 이 시인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까?(53절)
3.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분노,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.(눅19:46)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가져야 할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?
4. 시인은 나그네 된 집에서 무엇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했습니까?(54절)
5.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된 적이 있습니까?
6.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? (55절, 147절)
7. 시인은 무엇이 내 인생의 소유라고 말합니까?(56절)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
### ■ 함께 기도합시다.

- ①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도 주의 법을 지키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
- ② 서울시장,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자가 선출되게 하소서
- ③ 오륜교회 별관 공사가 민원이 없이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